



## 칠레 말벡의 선구자 **VIU MANENT**

뷰 마넨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와이너리다. 콜차구아 밸리를 대표해 최상급 칠레 와인의 품격을 보여준다. 뷔 마넨의 오너 호세 미구엘 뷔 보티니 (Jose Miguel Viu Bottini)가 한국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잡았다. 글 최준영 사진 및 자료제공 장영수, 하이트진로

### 뷰 마넨의 성립

스페인 까탈루냐 이민자 출신인 뷔 가족은, 1935년 칠레 산티아고에 보데가스 뷔(Bodegas Viu)를 설립하며 와인과 첫 연을 맺었다. 비노스 뷔(Vinos Viu)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네고시앙 역할을 하던 일가는 1966년, 콜차구아 밸리의 한 포도밭을 사들여 직접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이 인수한 아시엔다 산 카를로 데 쿠나코(Hacienda San Carlos de Cunaco)는 100년 넘게 포도를 재배하던 곳이었다. 150ha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필록세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럽 포도나무가 즐비했다. 이곳을 새 터전으로 삼아, 뷔 일가는 기존의 수준을 훨씬 웃도는 고품질 와인 양조를 목표로 품었다. 칠레 프리미엄 와인 명가, 뷔 마넨은 이렇게 탄생했다.

### 말벡으로 우뚝 서다

말벡은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메네르와 함께 칠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포도 품종 중 하나로 통한다. 이는 뷔 마넨의 공이 크다. 1993년, 칠레 최초로 말벡 단일 품종 와인을 만든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30년 전만 해도 칠레에는 엔트리급 와인이 절대 다수였다. 뷔 마넨은 산 카를로에서 처음 양조를 시작한 때부터,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고품질 와인 생산에 대해 궁리해 왔다.

“우리는 블렌딩 용으로만 쓰이던 말벡에 주목했다. 수확과 생산 공정 시스템을 최신화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초로 말벡 100% 와인을 내놓게 됐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현재 뷔 마넨을 이끄는 호세 미구엘 뷔



### 뷰 마넨의 대표 와인

이날 뷔 마넨 오너와 함께 한 자리에서는, 뷔 마넨의 아이콘 와인인 뷔 원과 싱글 빈야드 시라, 말벡을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맛볼 수 있었다.

#### 1 뷔 원 Viu 1

설립자 돈 미구엘 뷔 마넨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콘 와인이다. 말벡 단일로 만들어졌다. 여과를 거치지 않아 바디가 묵직하고 강렬하지만, 질감은 부드러워 깊은 인상을 남긴다.

#### 2 뷔 마넨 싱글 빈야드 말벡 Viu Manent Single Vineyard Malbec

콜차구아 밸리에 위치한 3개 재배구역 가운데 가장 최상급 구획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다. 풍성한 탄닌과 섬세한 질감이 인상적인 와인이다.

#### 3 뷔 마넨 싱글 빈야드 시라 Viu Manent Single Vineyard Syrah

최상급으로 선별된 구획에서 수확한 시라로 만들어졌다. 신선한 산도와 스파이시한 향, 파워풀한 구조감 끝에 번지는 미네랄 풍미가 미려한 여운을 남긴다.



가 과거를 회상했다. 말벡만으로 만든 와인이 인기를 끌자, 뷔 마넨의 명성도 함께 높아졌다. 점차 말벡 이외의 품종으로 만든 다양한 레인지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뷔 마넨은 싱글 빈야드, 그란 레세르바, 세크레토 등 다양한 레인지지를 구성해 말벡은 물론 까르메네르,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등을 이용한 인상적인 제품을 시중에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투어에 최적화된 와이너리

뷰 마넨은 칠레의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유력 매체와 기관이 선정한 ‘투어하기 좋은 와이너리’ 1위로 다회 선정된 바 있다. 다양하고 알찬 와이너리 투어 프로그램으로 연 5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다. 콜차구아 밸리에서 가장 많은 누적 방문객 수를 가진 와이너리로 기록되기도 했다.



뷰 마넨의 오너 호세 미구엘 뷔 보티니

뷰 마넨은 부지 내에 와인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부대시설도 다수 구비했다. 마차와 승마, 전기 자전거로 와이너리를 돌아볼 수 있는 투어링 프로그램은 기본이다. 어린 아이들이 가볍게 뛰어 놀 만한 액티비티 존, 수확 체험 프로그램, 직접 와인을 블렌딩하고 레이블까지 만들어 부착할 수 있는 와인 메이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호세는, “와이너리를 찾으면 모두가 인근 공원에 놀라운 듯 평온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며 누구든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방문할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문의 02-3443-3411